

퇴각한 11공수 주남마을 암매장 발굴되자 다시 광주 투입



89년 5·18특위 주남마을 현장검증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 14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0일간의 학살(5·18~27일) 이후 공수 부대는 왜 다시 광주에 내려왔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수부대와 한 면담 보고서를 보면, 김효겸이라는 부대원(5·18 당시 11공수 62대대 하사)은 “광주에서 철수 후 국민대(서울)에 주둔할 때 62대대장(이재원 중령) 인솔 하에 일부 병사들이 보병 복장을 하고 광주로 가서 가매장지 발굴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11공수여단의 다른 부대원 최규진(62대대 4지역대장) 역시 같은 조사에서 “6월 초, 여단에서 병력을 전체적으로 인솔해 광주로 내려갔다. 정○○이(사체를) 발굴하고 있다고 제게 보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5·18 당시 임시로 매장했던 시신 수습을 위해 광주로 내려갔다는 게 당시 군인들 증언이지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당시 공수부대가 와서 시신을 새롭게 발굴해서 민간이나 광주시에 인계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11공수부대원들 진술대로 상당수 부대원이 광주에 다시 내려온 시기는 1980년 6월 초로, 공교롭게도 주남마을 뒷산에 암매장했던 시신 2구(채수길·양민석씨)로 훗

다시 주목받는 5·18 공수부대 주둔지

일반 부대 복장으로 위장하고 서둘러 내려와 가매장했던 시신 옮기거나 깊숙히 매장한 듯 3공수 광주교도소·7공수 2수원지~너릿재 11공수 조선대 뒷산·송암동, 전교사 상무지구 주둔지 암매장 여부 정밀조사와 발굴 나서야

날 판명)가 같은 달 2일 주민들에 의해 발굴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견해(5·18 연구자)도 있다.

5·18 직후 주남마을에서 암매장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공수부대가 대거 광주로 서둘러 내려와 518 당시 가매장했던 시신들을 보다 깊숙이 매장하는 작업을 자행했던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의심은 현재까지 최소 75명(광주시 추정)이라는 5·18행방불명자가 엄존하는 데다,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으로 항쟁이 마무리된 이후 주둔지로 돌아

간 공수부대원들이 광주로 다시 내려올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5·18연구자 광주항쟁 당시 3·7·11공수여단의 주둔지와 이동 경로를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수부대원들이 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후 도청을 버리고 외곽으로 물러나 광주봉쇄작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암매장이 실존했다는 점에서다. 11공수부대가 자행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탐승자 17명 사망, 흉금속씨 홀로 생존)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와 지난 5월 인터뷰한 11공수 63대대 초급장교가

“도청 철수 이후 시민들이 보이면 쏘면서 퇴각했다”는 진술, 송암동 오인사격 사건 역시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과 관련해 주목할만하다.

5·18 당시 공수부대의 주둔지는 광주 시내를 제외하면, ▲3공수 광주교도소 ▲7공수 제2수원지~너릿재 ▲11공수 조선대, 송암동 ▲전교사(상무지구)와 광주비행장 등이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항쟁 직후 6월 초쯤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또는 일반 전투병 복장을 하고서 대거 광주에 다시 내려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당시, 11공수부대원들만 내려왔는지,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재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행방불명자들의 소재 파악에 관한 단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국방부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공수부대원들에게서 ‘11공수부대가 5·18 직후 6월 초 광주에 다시 내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부대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공수부대원들의 광주 재방문 목적을 파헤쳐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축 ‘공공협상’ 개시

공공기여 조건...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첫 적용

광주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 매입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대규모 유휴부지인 호남대 쌍촌캠퍼스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최초로 승인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2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7일 “지난 14일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호남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자문(안)’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개발밀도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현실적인 공공기여 규모 산출 기준 등으로 협상 진행 등을 조건으로 협상 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일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영향이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민간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 높게 개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그 첫 적용사례가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상 대상은 1만㎡ 이상 학교·공장 등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이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광주시에 개발계획 신청인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공공기여율은 개발이익(토지면적, 가격)의 20% 내외로 하고 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은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호남대 쌍촌캠퍼스 6만4116㎡에 아파트 18~27층 13개동 995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219.11%,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

축면적의 비율)은 14.43%였다. 시는 각 실·과에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지 내 도로·광장 조성, 운전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중앙공원 사유지 매입, 대상지 주변 부지 확보, 창업지원센터·어린이집·경로당 건립, 5·18기념공원 내 광주학성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8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418억7800만원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변 건축물을 감안해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할 것과 용적률을 타 학교 이전지 사례를 참조해 200% 내외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지의 가치성, 아파트 개발 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자가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과 공공기여 기준을 20% 내외로 할 것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했다. 성인학원 측은 당초 공공기여 규모를 부지면적의 10%로 제시했었다. 성인학원 측은 부지 가격을 공사시가의 2배인 372만6053원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600만원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는 실제로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라비가 지난 2015년 1월 최저입찰가보다 600억원이나 많은 1651억원에 사들였다가 7개월 뒤 해지한 바 있는 등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첫 적용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a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일보 65주년 기념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용량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보증금)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보증금)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보증금)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카라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000ml 이상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용량)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용량 소주 등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